



마음 맑히는 '깨침의 향기' 그윽

명정스님 펴냄

'산사에서 부치는 편지'

만 이렇게 쓰여진 편지들은 대부분 해독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하지만 쥐뿔이 묻고 색이 바랜 채 전해오는 종이 편지들은 고승들의 삶과 수행을 고스란히 전해 준다. 그 편지의 주인공들은 경허, 만해, 용성, 한암, 탄허, 효봉, 창달, 성철, 일타 스님 등 당대의 대표적인 스님과 재가신도 등 119명

경허·용성·한암 스님 등
고승·거사와 주고받은
주옥같은 선문답 서한집

에 이른다. 내용 또한 다채롭기 그지없다. 만해 스님의 육중 편지, 용성 스님의 친필 서한, 을사보호조약 때 한일합방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시일아방상대곡'이라는 글을 발표했던 장지연 씨의 편지, 성철 스님이 불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외국인 교수에게 보낸 편지 등 다양하다. 그 중에서 특도를 위해 끊임없이 만행을 떠나는 스님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 등 수행의 방법과 경지를 묻고 답하는 편지들은 문학적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다. '생(生)과 사(死)가 다 부처님의 뜻인데, 아직도 무(無)자 화두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



한암 스님



명정스님이 경봉스님에게 보낸 편지



경봉 스님

십니까'라는 효봉 스님의 질문에 경봉 스님은 "한번 화두를 꺼내면 접을 수 없는 그대에게 어찌 답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아직도 생과 사의 화두 속에 파묻혀 있는가. 이전 벗어나 시냇물에 발이나 담구어 보게"라고 답한다. 또한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선문답들도 있다. '옛 사람이 '조사'의 뜻과 경의 가르침이 같은가. 다르냐'를 묻는데 이에 답하기를 '담이 추우면 나무로 올라가고 오리는 추우면 물로 들어간다' 하시니 무엇입니까'라는 후배의 질문에 경봉 스님은 '담나무가 마르면 털이 털수룩합니다'라고 답한다. 이러한 편지들은 구절 구절 하나의 화두이며 시다. 하지만 독자들의 마음을 확 잡아채는 것은 이러한 선문답 속에서 가슴 뭉클하게 풍겨 나오는 고승들의 인간미다. 어린 자신을 절에 맡기고 간 병든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산을 내려가야겠다는 제자의 고인에 대해 경봉 스님은 "피안의 세계는

늘 그리움의 대상이 만들고 지우는 길"이라며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잘 걸무리해라"고 다독인다. 반면 출가를 결심했으나 세상과의 인연을 끊지 못하는 불자에게 "어서 돌아가서 어머니를 공양하거라"며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그래도 이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들이 당대의 대표적 수행자인 만큼 수행의 경지를 묻고 답하는 편지가 가장 많다. 첨단 컴퓨터 전송망을 통한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보내는 이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편지를 받아본 지가 오래된 것이다. 이런 시대에 이른 새벽 감로수에 먹을 갈아 한 소식, 한 소식 토크 단지듯이 오가는 선문답을 풍경소리와 대웅전 뒤 대숲을 스치는 바람소리 등과 버무려 적은 고승들의 편지 한 장은, 마음을 맑히는 법으로도, 오늘 이곳의 우리를 밝혀준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스튜디오 다시읽기 허공의 몸을 찾아서

간혹 불자들의 집에 거면 큰 서가에 깨끗하게 진열된 경전을 보게 된다. 그 때마다 나는 그 서가를 애써 외면하려고 애쓴다. 그 사람의 정신적 허영을 보는 것 같기 때문이다. 나부터 포함한 말이지만, 불자들은 경전 읽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불자들이 가장 가까이 해야 할 '부처님 말씀'을 멀리하는가. 그 이유 중 하나가 방대함이 아닐까.

불교는 다경전 다방편의 종교라고 한다. 경전의 종류도 많고 증성을 깨우치게 하는 방편 또한 다양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왜 경의 종류와 방편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취미와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간단하다. 불교에는 근기(根機)라는 말이 있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



경전바다 향해
초심자·일반인
든든한 길잡이

에 그 근기에 맞는 여러 종류의 경전과 방편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주제를 놓고도 경전마다 여러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초심자의 경우 이러한 방편 설법을 잘못 접근하면 혼란에 빠지기 쉽다. 그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맥을 짚는 것이다. 하지만 초심자나 일반인의 경우 맥을 짚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불자들에게 지명 스님이 엮은 경전 이해의 지침서 <허공의 몸을 찾아서>(불교시대사)를 권해본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요 경전의 핵심부 본만을 찾아 알기쉽게 풀이해 놓았다. 많은 경전을 다 읽을 수 없는 불자들에게는 훌륭한 다리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철저하게 일반인들의 수준에 맞게 엮었다는 점이다. 불교를 전공하는 학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의 불교입문서다. 그래서 복잡한 교리가 담긴 것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간추려 엮은 것이다.

불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 속에 담고 생활의 지침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대단한 행복이다. 우리 사회에는 불자들이 많지만 불법을 올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는 참 불자는 드물다. 지금 '부처님 말씀'에 눈과 귀를 기울여 참나를 찾아보자.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김중근 기자

부처님과 하나되는 절 수행

정견스님 지음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절을 하는 법을 가르치는 정견스님.

절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 이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절 수행 지침서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붓다의 말씀)이 나왔다. 글쓴이는 현재 양평에 재가 불자 전문수행도량 범양정사를 개원, 매주 토요일마다 수행법을 지도하고 있는 정견스님. 스님이 책을 내놓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불자들이 그릇된 방법으로 절을 하다 노년에는 관절염 등으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고부터다. 그 후 스님은 효과적 절법을 터득하기 위해 절수행 3년 결사를 시작했다. 이책이 그 결과물이다.

불교수행의 길잡이 첫 번째 권으로 출간된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글쓴이가 터득한 비법인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으로 호흡에 의한 수행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어 2장에서는 절 수행을 해는 불자들의 체험담을 통해 독자들에게 절 수행의 의미와 효과를 깨우쳐 준다. 한편 글쓴이는 <염불 독경 수행법>, <참선 수행법>, <와선 행선 수행법>, <도인 체조법> 등 불교수행의 길잡이 시리즈를 계속 해 내용을 계획하다. 값 6천5백원. 김중근 기자

김중근 기자

친근한 해탈의 가르침

정찬주 지음 '날마다 가슴에...'

우리 삶의 본질과 부처님의 가르침은 동떨어지지 않다. 겹겹이 벗고 나면 하나다. 우리는 종종 삶과 죽음, 인간관계, 행복 등 일상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 고민한다. 지금 이러한 문제에 부딪쳐 있다면 신간 <날마다 가슴에 새겨드는 붓다의 말씀>(양문)을 통해 해답을 찾으면 어떨까. 이 책을 읽다보면 누구나 부처님의 핵심사상인 '해탈에 이르는 가르침'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깨달음', '사랑', '육체와 마음', '명상', '자신과 사회' 등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고 있는 친숙한 주제들로 갈래를 나눴다. 이를 다시 달과 주로 나누어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음미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내용들은 모두 <아함경>, <법구경>, <반야심경>, <금강경> 등 낯익은 경전에서 가려 뽑은 것들이다. 하지만 그 문장은 한역 경전과 다르다. 인도 고대언어인 산스크리트 문장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비교종교학자인 앤 밴크로프트가 영역된 불경을 가운데 엄정한 구절들을 모은 <The Buddha Speaks>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14x6 양장, 값 7,500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야문
2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은 정 회	일 지 사
3	단박에 운회를 끊는 가르침	김 지 수	불 광
4	마음 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5	이른 아침에 나를 기억하라	틱 날 한	지혜의 나무
6	산사에서 부치는 마음의 편지	명 정	좋은 날
7	선, 신비주의인가 철학인가	변 상 설	컬처라인
8	염가전도	우 룡 효 림	
9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립 원
10	한국 역대 고승의 다시	무 산 명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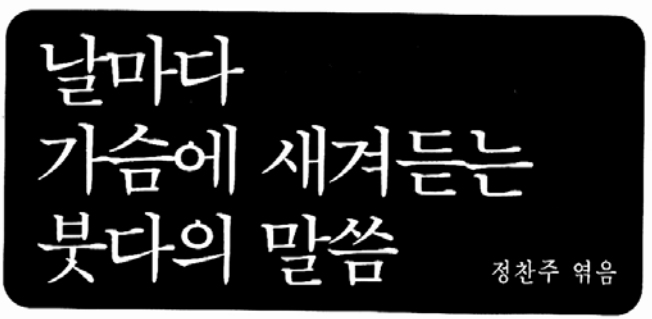
도서 안내:(02)737-0695

누구라도 붓다를 닮아 해탈에 이른다

가슴에 다가오는 친근한 붓다!

붓다의 바탕이 되는 가르침은 가능한 한 남을 돕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붓다는 자비와 지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선한 마음과 깨인 마음이 곧 해탈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달라이라마

이 책을 작업하는 동안 내내 붓다의 참모습에 감동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나는 내 눈에 들어와 있던 붓다라는 호명한 피사체가 이 책을 통하여 아주 선명해지는 느낌이었다. 실체를 모호하게 했던 결막이 사라지고 생생한 모습이 맘에 투사됐을 때의 기쁨이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역은이의말) 중에서



정찬주 불교소설 전문작가로 성철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소설 <산은 산 물은 물>, 만해 한용운 님의 전기소설 <만행>, 인도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집필한 <그곳에 부처가 있다>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는 <암자로 가는 길>,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암자에는 물 흐르고 꽃이 피네>가 있으며, 현재 '암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대표로 있다.

이 세상은 나의 사랑이며 또한 나다

혼란스럽고 험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늘 맑고 새로운 정신을 솟아나게 해주는 책!

달라이라마, 틱낫한, 잭 캔필드, 게리 스나이더, 조에나 메이시 같은 불교계의 위대한 스승들이 신앙이나 명상센터에 국한된 불교가 아니라 생활 속에 실천하는 불교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평범한 사람들도 불교의 관점과 지혜를 일터와 인간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조화시킬 수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다. 신국판 | 틱낫한 외 지음 | 값 9,200원